

interview



##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를 만나다

우리 협회는 최근 서울문화재단,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책 읽는 서울-기초예술 책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독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서울문화재단의 제의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지난 9월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이번 호는 30년 넘게 연극 배우로, 대학 교수로, 극단 대표로 활동해오다, 지난 5월부터 새로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유인촌 대표를 남산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 만난 사람 : 이용훈 기획부장

**Q**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5월 18일 출범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올 3월에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에서 기금 5백억원을 출연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문화 예술 법인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 예술 기금 지원 사업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아직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생소할 것입니다.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공간인 만큼 이번 '책 읽는 서울' 프로젝트를 통하여 재단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기관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번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책 읽는 서울' 프로젝트는 '기초예술-책부터 시작이다'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책 읽기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예술 책부터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을 내 거시게 된 연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기획의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A** 모든 것은 텍스트, 즉 책이 기본입니다. 솔직히 재단의 이번 프로젝트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문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 <http://www.sfac.or.kr>(서울문화재단)

생각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평소 독서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강원도에 개인적으로 연극 공연장을 개관하였는데 그 곳에도 책 읽어주는 카페가 있습니다. 서산에서 있었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이야기를 듣고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이 떠올랐습니다. 그 운동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그 외에 연극과 토론과 같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책'이라는 기초 예술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Q**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대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A** 재단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의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우리 재단의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이라는 기초 예술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시민단체, 문화기반 시설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캠페인의 주요 무대가 되는 서울시 곳곳에 자리잡은 도서관들을 통하여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Q** 이번에 '책 읽는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31개관이 참여합니다. 도서관에 대해 유 대표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도서관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능동적으로 외부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으로 장서구입에 문화행사 개최에 도서관 현장이 얼마나 바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 달라진 도서관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도서관하면 공부방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도서관에 대해 이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도서관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떻게든 사람들이 도서관을 많이 드나들어 서로의 오해나 이해 부족을 해소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서관이 모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도서관 별로 특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 근처 도서관에 가면 패션자료가 많고, 대학로 근처 도서관에 가면 연극자료가 많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현실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의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그 동네 주민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도서관 지도를 만들어 본 것도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책 읽는 서울' 개막행사에서 이명박 시장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는 모습

**Q** 도서관별 특화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뉴욕공공도서관을 자세히 소개한 책에서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이 뉴욕 문화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A**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서관을 재단이 새로 지으려면 힘들어집니다. 기존 도서관측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 특성화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주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어느 도서관에서 연극이나 무용쪽으로 특화하겠다고 재단에 알려주시면 재단에서는 관련 원로들에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보면 국내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예술사가 중요한데, 그 시대의 자료가 거의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다 못해 포스터만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어딴니까. 아쉽게도 현재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개인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뿐이지요.

**Q** 재단은 이번 '책 읽는 서울' 프로젝트를 계기로 책 읽기 사업을 더욱 확대·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A**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개막식, 폐막식 한 번 하고 그만둘 것이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시다. 효과가 있을 때까지 꾸준히 할 것입니다. 현재는 10월에 도서관들을 돌며 진행될 아나운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책 읽어주기 행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10월 28일 폐막식 행사 이후에도 '책 읽는 서울' 독서수첩 공모를 통해 분기별로 책 읽는 어린이, 책 읽는 청소년, 책 읽는 직장인, 책 읽는 가족 등 다양한 대상에게 대한 독서시상제도를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여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저도 창동 열린극장\* 이 문을 연 다음에는 시간을 내 서울시내 도서관을 쭉 둘러보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와 보완

해야할 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Q** 전에 연합인터뷰에서 '기업 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중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요?

**A**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워낙 분야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시간이 걸릴 일이지요. 우선 원로들을 중심으로 만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아직 7-8곳 밖에 못 가봤습니다. 재단 홍보를 많이 하면서 예술가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돈 이야기하는 것은 서양이나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 기업인을 만나면 기업인도 예술을 말합니다. 오페라를 이야기하고 발레를 이야기하고 사교장이 극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간의 큰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 기업인들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온갖 기획사 부터 정치인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깐요. 저도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예전에 내가 옥했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서로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업들의 문화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좀 더 덜어주어야 합니다. 세련되게 부를 나누는 고민이 필요하지요.

**Q**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의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서울문화재단 대표님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대표직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작품들을 해야 하고 등등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모두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현재는 교수직도 휴직계를 내고 유씨어터의 공연 지원금 신청서도 모두 철회하고 재단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 서울은 문화 예술 환경이나 활동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3년 임기가 끝나는 2007년 4월까지 문화 예술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서울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Q** 끝으로 요즈음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사람들에게 권할만한 책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A** 솔직히 희곡은 많이 읽어왔지만 다른 종류의 책들은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희곡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400년 전에 어떻게 이

\*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고, 기업에겐 효과적인 문화마케팅의 장을, 예술가에겐 저렴한 대관료로 공연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식 공연장이다. 9월 1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interview

# interview



◀ 유인촌 대표(좌) 이용훈 기획부장(우)

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는지 매번 감탄합니다. 국내 소설로는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을 좋아합니다. 1권만 읽어 볼까하다 단숨에 전권을 다 읽었으니까요. 나중에는 그 무대가 되는 벌교 보성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 유인촌 대표의 친필 사인

**Q** 이번에 재단에서 도서관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과 도서관이 좋은 협력자(파트너)가 되어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 고맙습니다. 

